

무료급식 중단 한 달... “어르신들 끼니 걱정”

서귀포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중단후 주1회 물품 전달
급식 자원봉사센터 이번주부터 식사 대신 물품 제공

코로나19로 지난 2월 중순부터 중단된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이 한 달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관 등에서 끼니 걱정을 하는 노인이 생기지 않도록 식사 대신 대체식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무료급식 단체에는 “언제부터 급식이 재개되느냐?”는 전화문의가 이어지는 등 급식을 기다리는 노인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귀포시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복지관에서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경로식당이 2월 12일부터 중단된 후에는 주3회 밥과 반찬을 담은 도시락을 제공했다. 그 후 26일부터는 휴식나모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접촉 최소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즉석밥, 국, 반찬 등 4일치 분량의 대체식품을 제공중이다. 11일은 복지관에서 지은 밥, 성계미역국, 반찬에 한전 서귀포지사에서 후원한 물품을 더해 제공했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경로식당은 하루에 250명 정도 이용했는데 현재 230명이 수요일마다 대체물품을 받아가신다”며 “즉석밥을 드리면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을 경우 물 끓이기 등 번거로움이 있어 직접 밥을 지어 제공하는 등 최대한 어르신 사정에 맞춰 물품을 제공중”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가 매주 화요일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무료로 운영하던 ‘참! 좋은 사람의 밥차’도 올해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당초 2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때마침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잠정 연기가 불가피했

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화요일마다 300인분의 식사를 차려냈던 터라 센터에는 언제부터 식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전화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10일에는 사랑의 밥차를 대신해 즉석밥, 라면, 김, 두유와 손소독제 등을 담아 120여명의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센터 관계자는 “매주 화요일마다 사랑의 밥차를 찾았던 어르신들이 식사 재개를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며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는 화요일마다 식사를 대신해 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귀포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상공회·매일올레시장 동참

서귀포시 지역에서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두달 가량 지속되면서 경영여건이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매일올레시장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작됐고, 이후 서귀포시상공회가 동참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27일 매일올레시장 상가 건물주 A씨가 최초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릴레이 형태로 이어져 벌써 6명의 건물주(사업장 12개소)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또 서귀포시상공회는 지난 10일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키로 하고 임대료 10% 인하를 결의했다.

김창홍 서귀포상공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이 상생과 나눔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위기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매일올레시장상인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가 잠잠해질 때까지 자체적으로 점포별 관리비를 20~30% 감면 결정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구청 코로나19 콜센터 방역 11일 오전 광주 북구청 대강당에 임시로 마련된 코로나19 농동감시자 모니터링실(콜센터)에서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을 계기로 긴급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주민센터서 배부·판매 안되나요?

생산량 부족 수요 충족 못해
물류체계 갖춘 약국이 차선

“당분간은 전량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팔아요.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신분증 가져가서 가족 수만큼 살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국내 보건용 마스크 생산물량 80%를 조달청을 통해 사들여 전국 약국과 읍·면우체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자 주민센터도 공적 공급처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공적 마스크를 당분간 무료로 배포해 단기간 수급 안정을 꾀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각 주민센터에서 공적 마스크를 팔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1일 이에 대해 “정부는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주민센터에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나눠주는 방안까지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에는 현실 여건상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접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장 안팎에 그친다. 최근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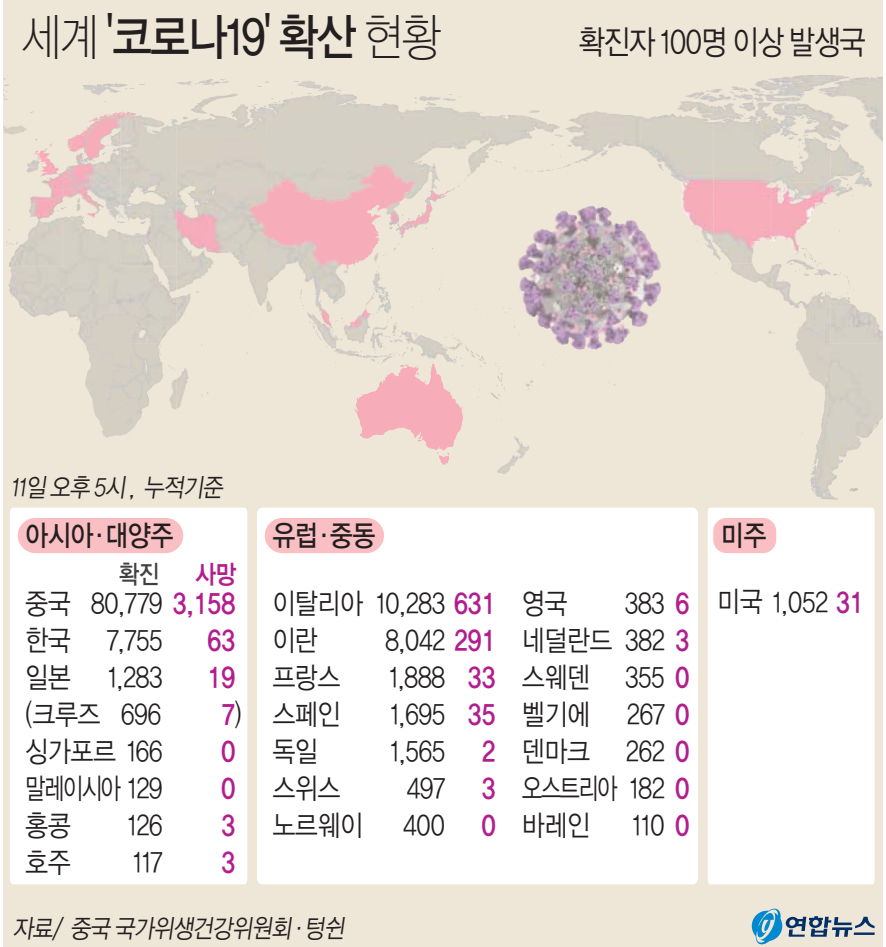
1300만장까지 생산역량을 끌어올렸지만, 현재 500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 총인구를 고려할 때 무료 배포하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하루에 한 사람당 1장도 못 돌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국민 접근성도 주민센터보다는 약국이 높다. 현재 전국의 주민센터는 약 3000여곳에 불과하지만 약국은 2만4000여곳에 달한다.

더욱이 주민센터에는 물류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민센터를 공적 판매처로 택하면 여기까지 마스크를 배송하는 새로운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어려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공적 역할도 하면서 주민 접근성도 높은 약국을 통해 공적 마스크를 보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주시 ‘일자리창출 지원금’ 선지급한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담 덜어
‘고용유지조치’ 제재도 완화

제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참여기업이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시는 일부 조정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또 기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를 2회 누적 시 약정해지 및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했던 것도 완화해주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가 가능토록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이윤형기자

농어촌진흥기금 대폭 증액
700억원 늘어난 2500억원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폭 증액 된다. 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로 지원 한도는 농어가는 1억 원까지, 생산자단체는 3억 원 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융자이율 0.7%이며 운전자급

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3년까지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규모는 전년도 1800억 원보다 700억 원 증가한 25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또한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상환금리도 0.7%로 낮췄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 등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융자금 신청은 신청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WINIX 공기청정기

타워프라임

APRM833-JWK (26평)

~~599,000원~~
500,000원

타워X

ATGM500-JWK (15평)

~~329,000원~~
265,000원

WINIX novita (구.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빙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